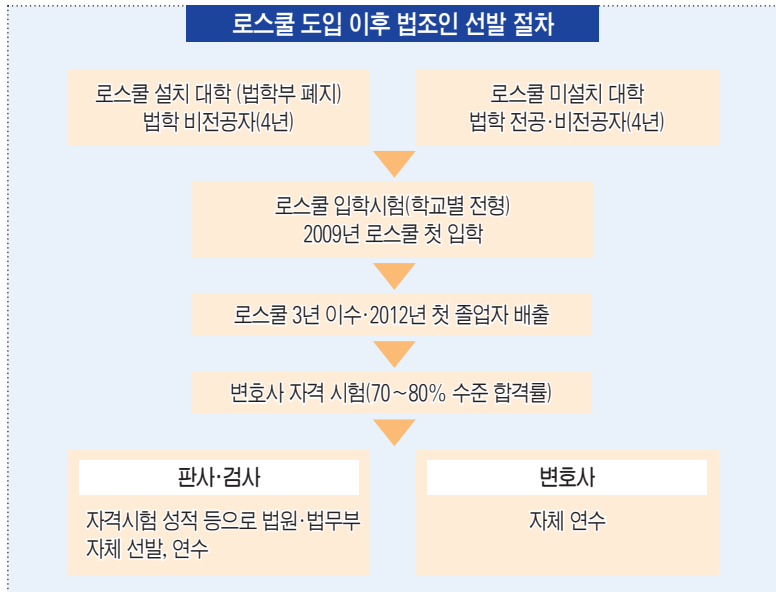


■ 법조인 꿈꾸는 중·고생들 법대냐 로스쿨이나

현 高1까지 법대 진학이 유리

관·검사나 변호사를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이 법대 진학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사법시험이 이르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후 로스쿨 졸업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 3 수험생의 경우 사법시험 응시 제한 압박이 커 종전처럼 법대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일반 학부에 진학했다가 로스쿨로 가야 할지 판단이 힘든 상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고 3년 수험생들은 장기적인 진로 계획과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총정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천200명, 대학과 시민단체는 3천명 이상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일부는 시험 성적 등 법원과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관·검사로 임용된다.

◇법대생 유리 전망 우세 = 법학 교수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법대에 진학하는 것이 법조인이 되기에 더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학 중에 사시 합격을 노릴 수 있고, 로스쿨에 가더라도 다른 전공자



조선대 국토대장정 100명 '완주 환호' 조선대 제4회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대학생 100명이 19일 16박17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모자를 들어던 지며 환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학교를 출발해 천안 독립기념관→충주→제천→영월→정선→강릉→고성 민통선→조선대에 이르는 436.6km를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걸어 완주했다.

법대+사법연수원 역할

제때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로스쿨은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을 하게 된다.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됐다. 설치법안 통과로 오는 2009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기존 사법시험 2014년 폐지 =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개교 시점부

2015년부터는 로스쿨 졸업해야 기존 사법시험은 2014년에 폐지 현 高3 장기적 진로 계획 마련을

터 학부과정에서 법학과나 법학부를 들 수 없다.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였던 사법시험도 없어진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로스쿨 개교 이후 5년간 존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안이다. 이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4년에 폐지된다. 폐지에 앞서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크게 준다.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고 3수험생이라면 군 입대나 휴학을 하지 않고 2012년에 졸업할 경우 졸업한 이듬해까지만 사시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즉 2013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가칭 '변호사시험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스쿨 졸업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시험

변호사시험법 생겨

에 비해 변호사자격시험 준비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로스쿨 유치가 유력시되는 최상위권 대학은 법학부가 없어지는 반면 중상위권 대학에는 법학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법학부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원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은 법학부 또는 최상위권 대학의 다른 학부로 진학하고, 중상위권 학과를 중상위권 대학의 법학부로 진학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대학은 상경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의, 중상위권 대학은 법학부의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인 전망도 우세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광주대 지역연구 사업 선정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0년 5월까지 3년 동안 모두 54억원을 지원받는다.

선정과정은 '광주지역 하우징자재산업육성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광주대·광주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며, 총 사업비의 20% 차지하는 광주대는 인력확보 및 양성, 디자인 및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3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여대 해부학 해외연수

○광주여대(총장 오장원)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자매대학인 중국 장춘중의약대학교에서 대체요법학과 2학년 재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침구 및 해부학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직접 사체 해부실습에 참여하고 주요 병변별 침구의 임상실습을 통해 동의의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대체의학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지게 된다.

광주여대 대체요법학과는 대체의학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해 중국 장춘중의약대학교 협약을 맺고 광주여대에서 3학년을 마친 뒤 중

의학대학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중의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조선이공대 고교생 기능대회

○조선이공대학(학장 김형곤)이 18일 대학 내 행사장에서 전국 37개 고교생 5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0회 전국 고교생 기능경진대회'를 가졌다.



올해로 10회째인 경진대회는 실업계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의 전공분야 활성화, 고교와 전문대학간의 직업교육 연계 교과과정 완성 등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지난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수치제어선반, 자동차 전기·전자, 공업화학분석, 레크리에이션 리더십, 아바타캐릭터디자인 등 1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공업화학분석 분야에 출전한 광주승의고 3년 안상빈(19)군이, 단체상은 광주전자공고·송의고·동일전자정보고·광주공고·금파공고 등이 각각 받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영어·수학 과목 사이버 심화학습 광주시교육정보원

광주시교육정보원(원장 리장인)이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보충·심화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수준별 맞춤형대로 제공된 1학기 학습내용을 되짚어보는 한편 영어와 수학 심화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려는 것이다.

영어 심화학습 콘텐츠 '리딩 잉글리시'(Reading English)는 미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입증된 읽기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데스티네이션 리딩'(Destination Reading)의 한국판. 전 세계 25개국 5천여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학 심화학습 콘텐츠인 '생활 수학'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문제로 제시해 문제해결능력과 수리적 사고력을 증진시켜준다. 시교육정보원은 단원별 온라인 평가 참여도, 사이버 학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과정평가 성적 우수자를 선정해 상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광주시교육포털서비스(cyber.gedu.net)에 접속해 27일까지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학습기간은 오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학부와 대학원 연계

내년부터 서울대생은 빠르면 입학한 지 6년 반 만에 서울대 박사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서울대 교무처는 2008년 1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석사 연계 과정은 총 5년(학사과정 3.5년+ 석사과정 1.5년), 학·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은 총 6.5년(학사과정 3.5년+석·박사 통합과정 3년)으로 운영된다.

이는 서울대가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수학·과학 과목

서울대생 내년부터 6년 반 만에 박사 땀다

의 수준별 분반 제도를 도입하고 최우수 학생들의 기초 과목 이수를 면제해 주는 등 이공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 진입 자격은 입학 후 4개 학기를 이수한 뒤 직전 학기까지 평균 평점이 3.3 이상인 학생으로 해당학과 일반대학

원 평점의 30% 이내 범위에서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한 학기 수강 학점 한도가 3학점 늘어나며 학사 졸업논문 제출을 면제받는다.

또 학부 재학 중에 대학원 과목을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2학점까지 미리 듣고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

는 '선 이수'(AP·Advanced Placement) 제도를 통해 학부와 대학원 조기졸업을 촉진키로 했다.

연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매학기 평점이 3.3점 이상을 유지한 상태로 7학기만에 졸업 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연계 과정에서 퇴출되는 등 엄격한 학사관리를 적용받는다.

서울대는 신입생 선발 당시부터 학부와 대학원 통합 과정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으나 고교 졸업생을 곧바로 선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3학년 진입 이후 선발키로 제도를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ODEM 직수입 생선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특별기획상품경매
인기상품 30%~최고50% 할인

유비모드 북부사업부 02-939-9071-2 / 로템갤러리 10-2890-1114